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짧지만 깊게, 왕빙의 영화 세계를 조망하다

- : 한국영상자료원, 오는 4월 30일부터 ‘왕빙의 짧은 영화들’ 기획전 개최
- : 왕빙의 초기작 <석탄 가격(Coal Money)> 부터 최근작 <흑의인(黑衣人, Man in Black)> 등 9편 상영



▲ <흑의인(Man in Black)>(왕빙) 스틸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오는 4월 30일(화)부터 5월 11일(토)까지 시네마테크 KOFA(상암동 소재)에서 ‘왕빙의 짧은 영화들’ 기획전을 개최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장르로 유명한 감독인 왕빙의 작품 중 상대적으로 상영시간이 짧은 영화 9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특히, 5월 11일(토) <흑의인(黑衣人, Man in Black)>(왕빙, 2023) 상영 후 왕빙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정성일 감독/평론가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 21세기에 데뷔한 거장 왕빙(王兵, Wang Bing)

1976년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태어난 왕빙은 류순예술아카데미에서 사진학, 북경전영학원(Beijing Film Academy)에서 영화 촬영을 전공하였다. 2002년 중국 북동부 몰락한 공업지역인 철서구에서 2년간 촬영한 <철서구(铁西区, Tie Xi Qu: West of the Track)>가 마르세유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데뷔와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중국여인의 연대기(和鳳鳴, Fengming, a Chinese Memoir, 2007)>, <잔혹한 공장(Brutality Factory, 2007)>, <원유(采油日記, Crude Oil, 2008)>, <석탄 가격(Coal Money, 2009)>, <바람과 모

래(夾邊溝, The Ditch, 2010)>, <세자매(三姊妹, Three Sisters, 2012)>, <광기가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瘋愛, 'Til Madness Do Us Part, 2013)> 등 20편의 작품을 연출하였다. 2017년 <미세스 팡(方綉英, Mrs. Fang, 2017)>으로 로카르노 영화제 황금표범상을 수상했으며, 2023년 칸 영화제에서 <흑의인(黑衣人, Man in Black)> 특별 상영, <청춘(봄)(青春, Youth(Spring))>이 경쟁 부문에 초청되며 여전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감독임을 보여주었다. 왕빙은 데뷔작 <철서구>부터 중국 사회에서 버림받은, 소외된 '인민'을 카메라로 기록하고 있다. 영화에 기록된 '인민'들의 모습은 중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일어난 특수한 상황으로만 볼 수 없다. 설명 없이 인물들을 담아내는 카메라는 오늘날 체제 이행,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문제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또한, 그의 작품은 카메라의 위치와 거리 즉,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문제, 지나가 버린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을 담아내는 미학적 차원에서 새로운 감각을 선사한다.



▲ <아빠와 아들>(왕빙) 스틸



▲ <이름 없는 남자>(왕빙) 스틸

□ 짧지만 깊게 왕빙의 작품을 탐구하기

이번 기획전은 왕빙의 작품 세계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대체로 왕빙의 영화를 관람하고자 하면 몇 가지 난관에 봉착한다. 첫째로 국내에 개봉하지 않기에 영화제 또는 예술/독립 극장에서만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상영시간이다. <철서구> 551분, <원유> 840분, <사령훈: 죽은 녀> 496분 등 왕빙의 작품은 길기로 유명하다. 하루를 꼬박 영화를 관람하는 데 쓰는 일이 쉽지 않기에 이름만 듣고 영화를 관람하지 못한 사람들, 어쩌면 언젠간 봐야 한다는 부채감마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빙이 인터뷰에서 밝혔듯 그의 모든 작품이 긴 것은 아니다. 60분이 되지 않는 작품부터 120분, 150분 등 다양한 상영시간의 작품이 존재한다.

이번 기획전은 왕빙 감독의 초기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상영시간이 짧은 10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검은 화폐인 석탄의 이동과 거래의 민낯을 세밀하게 포착한 <석탄 가격>, 정체 모를 남자의 일상을 사계절 동안 담아낸, 현재의 촬영 스타일을 형성한 작품으로 언급되는 <이름 없는 남자>, 가난으로 빚어진 고된 일상과 가족 해체를 담아낸 <세 자매>와 이를 짧은 버전으로 재편집한 <Alone>, 아들을 데리고 온 노동자 집안의 풍경을 통해 삶의 조건과 미디어의 관계를 탐구하는 <아버지와 아들>, 내전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타양족의 불안한 여정과

감정에 집중하는 <타양-경계의 사람들>, 영세의류공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비터 머니>, 알츠하이머를 앓아온 팡슈잉의 죽음을 담은 <미세스 팡>, 독일에서 망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음악가 왕시린의 음악과 증언, 퍼포먼스로 구성된 <흑의인>을 상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왕빙의 카메라의 형성과 변화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왕빙 감독을 국내에 소개하고 <광기가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촬영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천당의 밤과 안개>를 연출한 정성일 감독/평론가의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상영일정은 영상자료원 홈페이지(<http://koreafilm.or.kr/cinema/program.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다.(*금일 오전 10시 오픈 예정)

[참고자료] 프로그램 개요

왕빙의 짧은 영화들

- 일 정: 2024년 4월 30일(화) ~ 5월 11일(토)
- 장 소: 시네마테크KOFA 2관
- 상영작:

작품명(제작년도)	상영시간(분)	비고
석탄가격(2009)	53	
이름 없는 남자(2009)	100	
세 자매(2012)	153	
Alone(2012)	89	
아버지와 아들(2014)	87	
타양-경계의 사람들(2016)	148	
비터 머니(2016)	152	
미세스 팡(2017)	86	
흑의인(2023)	60	

(강연)

- 일시: 5월 11일(토) 14:30 <흑의인> 상영 후
- 강연자: 정성일 감독/평론가
- 주제: 왕빙 입문 가이드